

“농지법 개정 다음회기 꼭 통과”

수요 인터뷰

국회정각회장 서석재 의원

2월 18일 전통신사법보존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전통신사의 환경보존과 불필요한 행정규제 등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불교의 자주권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이다. 특히 조계종총무원과 국회정각회 문체부의 협조, 여야의원들의 공동발의로 전통신사법보존법 개정이 이뤄져 이후 불교관계 입법활동의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서석재 국회정각회장을 만나 이후의 불교관계 입법활동과 정각회 운영 방침 등을 들었다. (편집자 주)

민족유산보존차원 해인골프장 반대 “초발심 자세로 바른정치 구현 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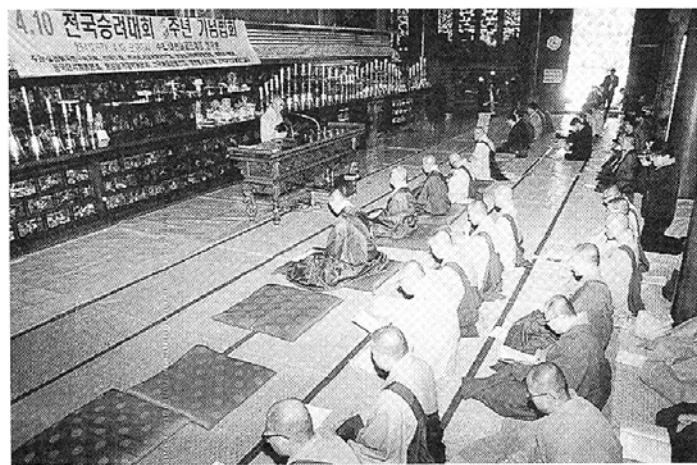
—전통신사법보존법 개정안의 통과까지는 어려운 과정이 많았습니다. 소감을 듣고 싶습니다.
▲2천만 불자와 불교계의 오랜 숙원인 전사법 개정을 완만성취하게 되어 불자의 한사람으로서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더불어 정각회가 총무원과 합심으로 법 개정을 이루어냈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은 성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번 회기 내에 자연공원법과 농지법 개정이 안되어 아쉽습니다. 다음 회기를 기대할 수 밖에 없는데…
▲농림수산해양부와 내무부에 계류중

인 농지법과 자연공원법 개정안이 이번 회기내에 처리되지 못한 점이 못내 아쉽습니다만, 대부분의 전국 사람들이 민족문화의 유산인만큼 특정종교의 문제가 아니라 민족전통 문화유산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발의한 것을 해당위원회의 위원들이 대부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회기에는 무난하게 통과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해인골프장 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대법원에 계류중입니다.
▲전사법 개정취지가 문화재보호와 더불어 생활환경보존에 있었다는 점에서

이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해봐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욱이 해인사에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팔만대장경과 관련이 있는 곳 아닙니까? 개발도 이해만 해 하나라도 세계문화유산에 악영향을 준다면 법논리만을 앞세워 이 일을 강행하는 것은 용서 못한 일이 아닌가 합니다. 또한 불교계뿐만 아니라 학계, 국민들조차 온당치 못한 일이라고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상식과

세계인의 이목을 감안한다면 좋은 방향으로 매듭지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각회가 여당 위주로 운영되었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지난 1년을 평가하신다면.
▲불교계의 숙원이었던 전사법개정이 초당적인 여야의원들의 합심이 없었다면 가능했는지 되묻고 싶어요. 이것만 보면 여야 불자의완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아 활동하고 있다는 실증이 아니겠습니까? 정각회원 모두가 불교발전을 위한 정책개발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당당을 떠나 불자의 한사람으로서 서로의 중지를 모아나가기 했습니다. 여야의 구분논리로 정각회를 바라보지 마시길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불교신앙을 가진 정치인으로서 신념을 밝혀주시시오.
▲저는 올해, ‘명정행 현정로(明正行 顯正義)’를 화두로 시작했습니다. 30여년의 정치일생 동안 늘 그래왔던 것처럼 ‘바른 수행이 바른 깨달음의 길’이라는 자세로 오늘에 임해 왔습니다. 최근의 국민적인 정치불신에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초발심의 자세로 바른 정치를 위해 열심히 뛰던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정치, 정치인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정성운 기자



조계종 4·10 승려대회 3주년 기념법회가 10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열렸다.

새로운 천년의 막을 여는 21세기는 우리민족에게 어떤 세기가 될 것인가.
“국제와 세계화 속에서 한국문화는 가장 인간적인 문화가 될 것이다. 삶을 존중하는 인간적인 문화이기에 세계적일 수 있다.”
최정호교수(연세대)는 지난해 열린 ‘한국 근대화 100년-21세기를 지향하며’ 국제학술회의에서 이렇게 전망했다.

지난 6일 지구촌 곳곳에서는 2000년 1월 1일을 거꾸로 세어가는 ‘D-1000일’ 카운트 다운에 돌

목어

불교와 ‘문화비전 2000’

기 새 역사 맞이에 들어간 셈이다. 한국도 뒤늦게 나섰다. 문화체육부는 6월 2000년대 우리문화의 방향과 역할을 제시하는 ‘문화비전 2000’ 구상을 발표했다. 이달중에 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문화의 날인 10월 20일까지 ‘문화비전 2000’ 계획을 만든다는 것이다.
여기서 문체부에 꼭 당부하고픈 말이 있다. 관계분야의 석학들로 구성되는 특별위원회에 불교계 인사들이 빠져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노과 심이라 하겠지만 88올림픽때 문화축전을 위한 위원회 명단을 재구성했던 기억이 있어서다.

‘문화의 세기’ 21세기를 준비하는 한국의 문화마당에서 불교의 자리는 더없이 중요하다. 우리민족의 삶속에는 보이게 보이지 않게 불교정신이 융해되어 있기 때문이다.
‘문화비전 2000’의 5가지 목표와 과제(삶의 질 향상, 전통문화 보존과 현대적 개화, 국가의 문화 이미지 일류화 등)를 이루려면 불교문화는 주목해야만 한다. 한국인의 얼굴·한국인의 마음으로 상징되는 불교는 삶을 존중하는 문화, 평화를 지향하는 문화, 인간적인 문화를 함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업이 더 큰 선(善)을 낳듯 문화도 운회를 한다면 찬란한 문화를 상속받은 오늘 우리는 석굴암 본존불, 팔만대장경, 그리고 반가사유상 등 숭한 문화유산을 21세기 성보로 다시 탄생시켜야 한다.
희망의 미래를 위해 우리는 결코 한가할 수도 불화(不和)할 수도 없다. 특히 ‘문화비전 2000’을 주도해야 할 불교는 더더욱 그렇다.
‘문화의 세기가 오고 있다.’
‘문화비전 2000’ 캐치프레이즈가 곧 전광판에 떠오를 것이다. 역사의 전환점을 향해 하루씩 지워나가면서 무엇을 생각 하시렵니까.

조계종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종단개혁 3년만에 도출된 분위기는 그동안 총무원의 개혁종단운영에 대한 비판의 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종회의원들이 모임을 결성 했다. 더구나 일부 본사주지들도 중앙집권 체제로 교구자율권이 위축되 시대에 역행하는 흐름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조계종단의 발전을 염원하는 중앙종회의원들의 모임’(공동대표 정우 종공성문 지인 현소)은 9일 기자회견을 갖고 “달로만 내세우며 독단과 전횡을 자행하는 현 집행부는 종단개혁의 완성을 운운할 자격이 없다”며 “중앙종회는 불교개혁과 발전을 위해 현 집행부의 부당성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는 내용의 성명서

진상규명 최우선 과제

BBS 새 경영진 구성...의혹 여전

불교방송 재단이사장 종하스님과 조해형사장의 사퇴, 불교방송 재단이사장 직무대리에 영담스님(상임이사), 불교방송 사장 직무대리에 서돈각 이사장(대한불교진흥원), 불교방송 전무에 권오현국장(대한불교진흥원) 선임이 지난 4일 열린 불교방송 긴급이사회회의 결과였다.
이사회에 이어 불교방송은 후속인사로 지난 8일 영배스님(前 심의실장)을 관리총괄 상무에, 김종기씨(前 기술관리국장)를 방송총괄상무로 승진임명했다.
겉모양새로만 보면 이번 불교방송 공공형량사건과 관련된 경영진의 퇴진이라는 소문을 얻어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동안 선수습 후문책을 내

이같은 분위기에 대해 공공형량사건의 확실한 진상규명이 없는 경영진의 사퇴와 새 경영진의 구성은 임시방편적이고 미봉작이라는 지적을 결코 피할 수 없다는 것이 교계의 여론이다.
사실 이사회가 열리기 전 무능한 이사장에 대한 전면개편의 목소리가 높았다. 개국이후 95년까지 방송국 결손금이 70억원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한 번도 이에대해 지적하지 않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불교부산방송 개국성금 관련 5억원 증발 의혹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고, 방송국비자금과 관련한 외환은행 당좌계좌와 용도에 대한 의문도 여전히 남아있다.
방송국 감사기간 동안에도 불교청주방송(4억6천만원)과 불교대구방송(3억5천만원)의 컴퓨터회계기록이 조작되고, 대구지국의

인사조치 임시방편책 여론 검찰 관련자 적극수사 절실

세워온 재단이사회의 논리대로라면 ‘선수습의 명제’는 미결로 남겨둔채 경영진의 사퇴로 사건을 일단락지으려는 분위기가 광배해가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최근 구속중인 김현안씨가 검찰에 제출한 탄원서에 따르면 ‘회사발전을 위해 하는 일’이라는 경영진과 김선도의 지시만 따랐을 뿐이라며 자신의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어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사실은 지난 2월 초 베트남을 다녀온 김선도씨의 부인이 이번 사건의 핵심적인 열쇠를 담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김선도씨의 녹취테이프를 가지고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검찰이 이에대해 적극적인 조사를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로 송금된 8억5천만원등 경리회계 관련문서 위조 변조의 사실도 아직 정확히 규명되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불자의 성금이 포함된 수십억원의 손실금액을 찾기 위해서는 명확한 진상규명이 최우선 과제라 할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지난 8일 열린 ‘불교방송바로세우기 공청회’가 불교방송공공형량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범불교대대책위원회 구성을 대안으로 내세워 이에대해 본격적인 구성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불교와 방송의 결합이라는 불교방송의 특수성을 차치하고서라도 이번 사건을 전불교계로 공론화시켜 철저히 규명하자는 것이다. 불교방송 새 경영진은 규명을 통한 정상화에 나서야한다는 여론이다.
이은자 기자

△개혁의지 퇴색 △선본사 직영사할 논란 △종단예산 집행 등이지만 무엇보다 총무원에 대한 불신의 벽이 높다는 점으로 분석된다. 가장 첨예한 현안인 종정사표를 두고 해석이 상반되는 것에서 그 정도를 짐작할 수 있다.
총무원은 1백25회 총회에서 총무원장이 밝힌대로 종정스님의 뜻을 잘 받들었

다는 것이다. 따라서 종정스님의 사퇴는 현 집행부에 대한 불신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하나의 불씨는 개혁의지의 퇴색이라는 점이다. 개혁불사로 참출된 집행부가 그 의지에 반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분위기는 94년 개혁당시 주체세력이던 단체들이 개혁의 새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한데 이어서 발생해 총무원을 더욱 곤혹스럽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종회의원모임은 “이같은 총무원의 파행운영등으로 인해 종단개혁이 무너지고 있다”고 천명했다.
이에대해 총무원측은 “종단개혁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종단 일부분에서 개인과 사종의 이해에 집착하여 일하종정스님의 사퇴와 선본사의 운영을 지의적으로 해석 유포하여 종단개혁불사를 가로막고 있다”고 일축했다.
이처럼 종회의원들이 연대해 총무원을 비판하고 나선만큼 15일 126회 임시총회의 향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종근 기자

“조계종 분위기 심상치 않다”

종회의원 연대 집행부 비판성명 발표 “개혁의지 퇴색”... 15일 총회 시선집중

를 발표했다. 20여명의 종회의원으로 결성된 이 모임은 앞으로 공개질의서 등을 비롯 현 집행부의 문제점을 순차적으로 공개지적할 것임을 밝혀 종단 기류가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내다본다.
‘종회의원모임’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조계종 불화의 진원지는 △종정사퇴

고 또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종정사표는 총무원에 대한 불만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반면 ‘종회의원모임’은 종정스님이 종단의 발전을 위해 제도개선과 보안을 집행부에 강조했으나 현 집행부는 개혁종단을 표방하면서 종정의 교시를 무시했

지혜와 자비로 세상을 밝게

부처님 오신날 봉축행사 총괄표

불기 2541년 부처님 오신날 봉축행사를 다음과 같이 병행하오니 모든 행사가 원만히 회향되도록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분 | 행사명 | 일시 | 장소 | 집행처 |
|-----------------|-------------|--------------------|---------------|--------------|
| 주관행사 | 법요식 | 5. 14 (수) 오전 10시 | 조계사 | |
| | 연등축제 | 5. 11 (일) 오후 2시 | 동대문운동장▶종로▶조계사 | |
| | 봉축의 밤 | 5. 9 (금) 오후 6시 30분 |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 | 봉축위원회 중앙신도회 |
| | 시청앞 점등식 | 5. 2 (금) 오후 7시 | 시청앞 광장 | |
| 문화예술행사 | 봉축음악회 | 4. 9 오후 7시 30분 | KBS 홀 | 보명사 |
| | 만동만화공방법회 | 4. 12 오후 3시 | 장충체육관 | 연화정사 |
| | 부처님 오시는 소리 | 4. 21 오후 7시 30분 | 세종문화회관 소강당 | 수국사 |
| | 시낭송회 | 4. 26 오후 5시 | 조계사 문화교육관 | 현대불교문화회 |
| | 봉축음악회 | 4. 29 오후 6시 | 소파텔 엠버서더 | 동국대 문화예술대학원 |
| | 불교관화전 | 4. 30~5. 6 | 단성갤러리 | 한국불교문화원 |
| | 이차돈의 하늘 | 5. 1~5. 6 | 국립극장 | 국립극장·조계종총무원 |
| | 봉축사진전 | 5. 6~5. 14 | 조계사 | 대한민국 불교사진연합회 |
| | 영산대개 | 5. 12 오후 3시 | 일산 호수공원 | 고양시 사업연합회 |
| 고려연등의식제연 (다례부분) | 5. 18 오후 1시 | 덕수궁 | 차생활예절연구원 | |

| 구분 | 행사명 | 일시 | 장소 | 집행처 |
|----------|----------------------------|-----------------|--|-----------------|
| 경축행사 | 애기봉 OP 점등식 | 4. 24 오후 6시 30분 | 애기봉 | 해병청통사 |
| | 전방 OP 점등식 | | 백암,아산,울지전망대,백석,봉일전망대,도라,밀골,필승,종각,태종전망대 | 종단협군승단 |
| | 건강가족 마라톤대회 | 5. 5 오전 10시 | 목동 청소년회관 | 목동 청소년회관 |
| | 불교공연대회 | 5. 11 오후 1시 | 조계사 | 불교공연대회 |
| 어린이청소년행사 | 연꽃노래잔치 | 5. 4 오후 19시 | 동국대 중앙당 | 서울불청 |
| | 어린이 부처님그리기대회 | 5. 5 오전 10시 | 목야불교박물관 | 월간 '불광' |
| | 청소년탐돌이한마당 | 5. 10 오후 6시 | 탑골공원 | 파라미터 |
| | 참나청소년 통일환경문화예술대전 | 5. 18 오전 9시 30분 | 보라매공원 | 한국불교청년회 |
| | 청소년 종합예술경연대회 | 5. 25 오후 2시 | 동국대 중앙당 | 청교련 |
| 학술행사 | 해인사 비로자나불 복장유물의 고찰 | 5. 2 오후 1시 | 동국대 학술문화관 | 성보문화재연구원 |
| | 민족통일과 불교 | 5. 6 오후 4시 | 대불청 만해교육관 | 전국불교운동연합 |
| | 한국청소년문제의 실태와 불교 청소년 복지의 방안 | 5. 8 오전 10시 | 중앙승가대 정진관대강당 | 중앙승가대 불교사회복지연구소 |
| | 불교의 시각에서 본생명복제 | 5. 9 오후 1시30분 | 동국대 90주년 기념문화관 | 동국대불교문화원 |
| | 불교문화유산의 보존과 전승 | 5. 24 오후 2시 | 불교회관 1층 | 한국교수불자연합회 |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장 송 월 주